

# 전북자치도, 동절기 축산재해 예방 총력 대응

### 내년 3월까지 '축산재해대책 상황실' 가동... 재해취약 309개 농가 대상 선제적 현장점검·시설 보강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재해예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 상황 모니터링, 기술지원, 긴급 대응과 복구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상황실은 기상특보 발령 시 즉시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피해 발생 시 현장 확인과 피해조사, 손해평가, 복구 계획 수립 등을 단계적으로 신속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재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설과 한파에 취약한 309개 농가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축사 지붕·지저대 안전성, 보온과 단열 상태, 전기·난방 설비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폭설 피해 사례가 있는 지역은 점검 대상을 한층 넓혀 재발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노후시설이나 위험요인은 시군과 연계해 즉각 보수 조치하도록 하고, 농가 스스로 예방수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안내도 병행 중이다.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 도는 이번 겨울 축산재해 예방에 총 16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 중 약 140억 원은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편성해 자연재해,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한다. 또한 축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과열 감지장치 설치 등 '축산화재안전 시스템 개선사업'에 5억 원, 지붕 보강과 보온재 보완, 시설 자체 확보 등 시설 보강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한파 시 급수시설 동파 방지, 난방기 과열 차단, 누전차

단기 점검, 축사 내 먼지 제거 및 배선 정리, 시설 정비 확보 등 농가 즉시 적용 가능한 예방 요령을 문자, SNS, 안내 리플릿 등을 통해 지속 전파할 계획이다.

민선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절기 축산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커지고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대비'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기상특보 발령 시 축사 점검과 전기·난방기 관리 등 안전 수칙을 꼭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호기자

## '제15회 전주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 노사한마음대회' 성황리 개최

### 공직사회 화합·소통 강화 위해... 도내 8개 시·군 공무원 약 600여 명 참여·신뢰 기반의 노사 상생문화 확산 기대

제15회 전주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마음대회가 지난 7일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재선)이 주관, 도내 8개 시·군 공무원과 가족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회의 개최를 함께 축하했다.

한마음대회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희망 퍼포먼스 △대회사 및 환영사 △축사 △체육경기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기념식에서 희망 퍼포먼스를 통해 노사 간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에서 "서로를



제15회 전주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마음대회가 지난 7일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격려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든다"며, "전북자치도의 변화와 발전은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함

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선 전주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제15회 전북연맹 노사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매우 기쁘다"며 "앞

으로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일하기 좋고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진안=우태만 기자

## 전북자치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 특별법 개정 릴레이 '재생의료 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 개최... 첨단재생의료 실증 산업화 거점 도약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주)메드비바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 강길선 교수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

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근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과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별법 특례로 특구 지정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해 전북형 혁신산업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재생의료 특구 지정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핵심 과제로, 지역 혁신산업의 제도적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례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말까지 릴레이 세미나를 지속하며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전북특별법, 입법 논리를 보강하고, 2026년 정부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학교급식 현장·지역가공업체, 상생 방안 모색

### 익산서 '지역가공거리 생산·소비 소통 교류회' 개최

학교급식 현장과 지역가공업체가 한 자리에 모여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익산에서 열렸다.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익산시청,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익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난 6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지역가공거리 생산·소비 소통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이 학교와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급식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익산 지역 학교 영양교사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학교급식에 제품을 납품 중인 18개 업체와 공급을 희망하는 9개 업체가 참여해 두부류, 장류, 유지류, 제과·제빵류 등 20여 개 품목과 경쟁력,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시식과 시향 체험이 함께 진행

돼 참가자들이 제품의 맛과 향을 직접 확인하고, 학교·공공급식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지역 식재료가 급식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행사장에는 이번 교류회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의 제품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역가공식품 전시관'이 마련돼 다양한 지역 먹거리를 직접 비교·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센터는 오는 11월 중 김제와 부안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도내 학교·공공급식과 지역가공업체 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장은 "이번 교류회는 학교급식 현장과 지역 가공업체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뜻깊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지역가공거리가 공공급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 전북소방, 올해 안전관리우수업소 26곳 인정

### 안전조사·교육 면제, 보험료 감면, 주요 포털 노출 등 혜택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도내 신규 8곳, 갱신 18곳 등 총 26곳을 인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신규지정업소는 △CGV 서전주점, △스타벅스 전북대병원DT점, △투썸플레이스 익산영동점, △군산 제이와이스크리폴드, △남원 NH시네마, △김제 셀리스트 브루어리, △설빙 완주봉동점, △무주 수리원 등 8곳이다.

올해 갱신대상은 우수업소 지정기간인 2년 동안 위반사항이 없어 연장된 업소로 △부안 뮤직시티 노래연습장, △오양자 익산모현점, △진안 마이암, △전주 스노잉, △진안고원 골프연습장, △순창 카페오늘, △고창 선운골프

존, △할리스커피 부안격포점, △CGV 전주효자점, △투썸플레이스 군산디오션시티점, △스타벅스 익산모현점, △정음 워너3D골프아카데미, △남원 VIP 스크린골프연습장, △원주 카페스파치오, △진안 국제가든, △순창 카페자연다울수룩, △고창 장어명가풍천, △부안 카페쿠송 등 18곳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정된 업소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며, 보험료 감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업소 검색 시 '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기가 표시되어 누구나 안심업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폭설·산사태로 고립된 지역민 구조 신속하게

### 전북소방, 겨울철 고립 우려 산간마을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수)는 겨울철 폭설이나 산사태로 고립될 우려가 있는 산간마을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폭설 등으로 진입도로가 유실되어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방행기를 활용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고, 인명구조와 응급처치를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출동체계는 고립위험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집결장소에 소방헬기와 관할 119구조대가 동시에 집결하고, 항공 및 산악구조 교육을 이수한 구조대원이 경량 구조장비를 휴대한 채 헬기에 탑승하며, 소방헬기가 호이스트 등을 이용해 고립된 산악지역에 접근해 인명구조와 응급조치를 실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소방행기 연계 긴급구조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립 예상지역 인근에 소방항공대와 구조대가 집결할 '당대부 포인트(지정집결장소)'를 사전 지정하고, △구조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항공대가 각 소방서를 순회하며 항공안전 교육을 추진하며, △도내 고립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실전형 합동훈련을 실시해 겨울철 재난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오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겨울철 폭설로 고립될 수 있는 산간마을에 대해 항공과 지상 구조대 간 합동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공공주도 외국교육기관 설립 최적의 계획 마련

### 새만금공사, 타당성 조사 고도화 용역 최종보고회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첫 분양을 앞두고, 지난 3개월간 추진한 '새만금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고도화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지난 7일 공사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연구원,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연구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공공주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최적의 계획 마련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전북연구원이 과제를 맡아 규모·사업비·사업모델 등 설립 핵심 요소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의 정원은 540명 규모로 유·초·중·고 통합 형태, 총사업비는 약 813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북자치도와의 공동추진 전략 분석, 전북도교육청에 내국인 정원 비율 상향 제안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 외국교육기관은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이자 수변도시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하며, "전북도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인가

### 태이팩스 182.4kW·주왕산업 709.9kW 규모... 이달부터 운영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 (주)태이팩스와 (주)주왕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지난 7일 개발행위 준공 인가했다.

개발행위 준공이 승인됨에 따라 두 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태이팩스는 182.4kW, (주)주왕산업은 709.9kW 규모로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주)주왕산업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생산·납품하는 업체로 2024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태양광 발전설비 부문)에 지정된 유망기업으로, 이번에 설치한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잉여전력을 판매할 계획이다.

(주)태이팩스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수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RE100 실현을 위해 자가소비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했다.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앞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RE100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발행위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 전북환경청, 토양안심주유소 운영실태 집중 점검

전북지방환경청이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도내 토양안심주유소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환경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지정·관리 중인 토양안심주유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와 관련 제도 준수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토양안심주유소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권장하는 이중벽탱크, 누유경보장치 등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주유소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1,032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전북 지역에는 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2024년 말 기준).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된 시설은 5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올해는 7개소를 대상으로 유류 저장탱크

및 주유기 연결부 누유 여부, 누유경보장치의 작동 및 파손 여부,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체 정기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되, 시설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고장을 방치한 경우에는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김병서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은 "대부분의 유류저장시설은 지하에 매설돼 있어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한 번 오염되면 정화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토양오염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사업주 스스로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상근기자